



울산 울주군 육아종합지원센터
ULSAN ULJU SUPPORT CENTER FOR CHILDCARE

가을 소식지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어 보세요.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023
Vol.56

아기자기
아기자기

이리와 함께 하는
열두가지 채소놀이



단호박
놀이



가지
놀이



감자
놀이



전국시군구육아종합지원센터협의회



“온양에서도 만나요”

울주군 온양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안내



이용 시간 ※ 센터 운영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변동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 화~토요일: 9:30~17:30(점심·소독: 12:00~13:00)
- 연장운영: 9:30~19:30(격주 수요일)
- 휴 관 일: 월/일요일, 법정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 근로자의 날



회원가입

울주군 온양육아종합지원센터와 울주군육아종합지원센터는 통합회원으로 운영되므로 1회 회원가입시 센터 간 연동 가능합니다.

- 가입대상: 울주군에 주소를 둔 만5세 이하 취학 전 영유아의 보호자와 예비부모
- 가 입 비: 최초 1회 10,000원(카드결제)
- 감면대상 및 구비서류

대상	감면률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 지원 대상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준1~3급) 	전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3개월 내 발급) · 감면대상 관련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자녀(두자녀 이상) · 다문화 가족 · 국가유공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기준4~6급)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 	10%	



장난감 도서관 대여 물품 반납 시 대여한 장소에서 반납처리가 이루어집니다.

1. 장난감 대여

- 대여수량: 1회 2점
(大 1점, 小 1점 또는 小 2점)
- 대여기간: 14일
- 이 용 료: 1점 1,000원
(카드결제, 감면 혜택 적용)



2. 돌·백일상 및 에어바운스 대여

- 이용방법: 홈페이지 신청
- 신청기간
[돌·백일상] 전월 첫째 주 수요일
[에어바운스] 전월 첫째 주 목요일
- 이 용 료: 무료



양육상담

/개별/

- 정서·심리상담 / 놀이코칭 / 언어코칭 / 발달정밀검사
- 정서·심리상담 / 놀이·언어코칭: 무료
 - 발달정밀검사: 유료(50,000원 이하)
- ※ 검사 종류에 따라 상이함

/집단/

자녀양육 및 상호작용, 부모역할에 대한
공감과 소통의 기회 제공



놀이지원 프로그램 ※ 프로그램 및 진행기간에 따라 상이함

- 신청방법: 프로그램 진행 전월 둘째 주 홈페이지 신청
- 이 용 료: 20,000원 이하(재료비 별도)
- 프로그램 내용: 새싹생태, 놀이미술, 뮤직빛깔, 오감톡톡 등





재난 호 보기



11월 20일은 무슨 날일까요?

아동의 권리 존중을 위하여 UN에서 ‘아동권리협약’을 채택한 날이에요.

유엔아동권리협약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서 권리를 지니고 있듯이 영유아를 포함한 아동 또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은 19세기부터 높아지기 시작하여 20세기에 들어서 이를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모색되었고, 아동권리 존중을 위한 노력의 대표적인 결과가 유엔이 1989년 11월 20일 채택한 아동권리협약입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은 국제인권조약으로서 아동이 누려야 할 모든 권리를 담은 국제적인 약속이며 전 세계 196개국에 비준하여 역사상 가장 많은 국가가 비준한 협약입니다.

아동권리협약은 전문과 5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크게 4대 원칙과 4대 권리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비차별 원칙 |

모든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 생존 및 발달 보장 원칙 |

모든 아동은 자신의 생명에 고유한 권리를 지니기에 가능한 최대한의 생존과 발달을 위한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 아동 이익 최우선 원칙 |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활동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최우선으로 아동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 참여 및 의견 존중 원칙 |

아동에게 자신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아동의 의견이 청취되고 존중받아야 한다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





| 생존권 |

아동이
생명을 유지하고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

-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권리
- 기본적인 의료·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 보호권 |

모든 형태의 폭력, 차별,
과도한 노동, 부당한 대우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유해한 약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응급상황에서 보호받을 권리

| 발달권 |

아동이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

- 교육받을 권리
- 놀이와 여가를 즐길 권리
- 적절한 정보를 얻을 권리
- 생각과 양심의 자유를 누릴 권리

| 참여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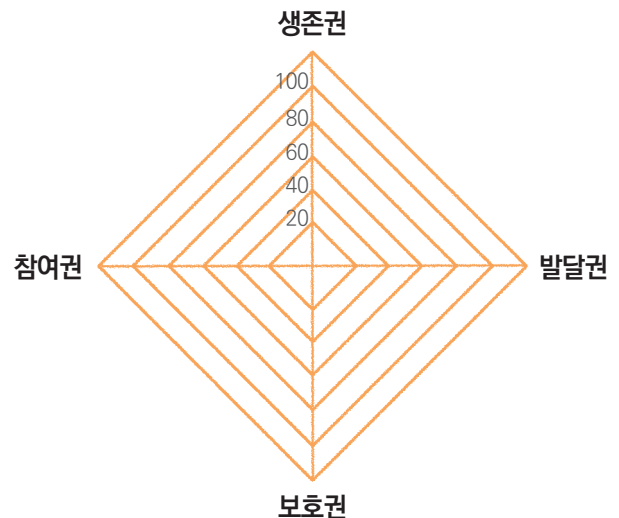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사회의 한 구성원
으로서 참여하고
발언할 수 있는 권리

- 자유롭게 의사 표현할 권리
- 자유롭게 모임을 열 수 있는 권리
-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영유아 인권 다이아몬드

4대 권리 영역이 고르게 실현되면
우리 아이들의 인권 다이아몬드가 빛이 납니다.

- 우리 가정에서 볼 수 있는 자녀의 인권 다이아몬드를 아래 방사형 그래프에 그려보세요.
- 부모님이 원하는 이상적인 영유아 인권 다이아몬드를 그려보세요.
- 부모님이 원하는 인권 다이아몬드와 우리 가정에서의 영유아 자녀의 인권 다이아몬드 모양이 왜 다른지 생각해보세요.





재난 호 보기

아이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놀이에 가을을 담다!

글, 사진 · 김민지(드로원아트 대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 아이에게는 다양한 놀이를 하기에 좋은 계절입니다. 놀이는 즐거움과 더불어 아이의 신체, 인지, 사회성, 정서, 창의성 등 전반적인 발달에도 영향을 줍니다. 아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놀이 공간, 놀이 시간, 적절한 기회 등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가정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미술놀이를 통해 아이의 표현에 더욱 관심 가져 볼 수도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놀이하고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경험들은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도와줄 것입니다.

낙엽 인형 놀이

가을 산책을 하며 느낀 자연에 대해 이야기 나누거나, 낙엽을 자유롭게 탐색해 봅니다. “낙엽은 어떤 모양과 색깔이 있니?”, “낙엽을 만져 보니 어떤 느낌이 나니?” 등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봅니다. 낙엽을 보고 날개가 떠오르면 새를 만들어보고, 긴 코가 생각되면 코끼리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직접 만든 동물 인형을 활용해 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낙엽, 투명 봉투, 쇼핑크 혹은 색종이, 양면 테이프, 가위, 풀, 철사 모루 혹은 고무줄, 테이프 등을 준비합니다.



쇼핑크 혹은 색종이를 구겨서 투명 봉투에 넣습니다.



낙엽을 넣어 동물의 털이나 깃털을 표현합니다.



철사 모루나 고무줄을 활용해서 투명 봉투를 묶어 동물의 귀를 만들고, 몸과 꼬리를 표현합니다.



토끼, 물고기, 부엉이 등 자유롭게 아이가 만들고 싶은 인형을 만듭니다.



색종이로 인형의 얼굴을 꾸밉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인형을 만들고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인형 놀이를 합니다.



놀이 tip

-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 짓기를 하며 낙엽 인형으로 놀이해 볼 수 있습니다.
- 가족과 가을 산책을 할 때 보물찾기 놀이로 낙엽 인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실물 단풍잎이나 낙엽을 이용하여 인형을 만들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뭇잎의 색 변화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재난호 보기



내 아이를 위해 어린이를 존중하는 문화 함께 만들어요



글 · 이 성 옥 (서울대학교어린이보육지원센터 느티나무어린이집 원장)



다음 중 ‘어린이’의 뜻은 무엇일까요?

- ① 어리석은 사람 ② 아직 깨우치지 못한 사람 ③ 나이가 어린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여 높이 부르는 말

답은 3번입니다. 101년전 방정환 선생님께서 나이가 어린 사람을 격식을 갖춰 부르는 ‘어린이’라는 호칭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어린이’는 사전적으로 어린 아이를 대접하거나 격식을 갖춰 이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전의 정의와는 다른 현실 상황 때문에 선뜻 답을 고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요린이, 부린이, 주린이, 골린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용어는 각종 언론과 방송에서 사용되며 대중적으로 널리 퍼진 신조어입니다. 어떤 분야의 초보자나 막 시작한 사람을 낮춰 부르는 말입니다. 이 신조어에는 ‘어린이’가 아직 깨우치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를 동등한 인격체로 보기보다는 미성숙하고 부족한 존재로 보는 편견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신조어의 사용이 유행이 되고 지속된다면 어린이에 대한 사회의 편견이 강화될 수 있고 그 말을 지속적으로 듣는 어린이들의 정서와 사고 발달에 좋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조사에서 어린이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받는 느낌이 든다고 말합니다. 어린이를 인격체로 존중한다면 미숙한 사람을 우스개로 삼아 ○린이로 표현하는 것은 그만 두어야 합니다. 그런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아이들에게 좋지 않으니 사용하지 말자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노키즈존을 표방하는 것은 사업자의 영업상 자유일까요?

노키즈존 논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사업주들이 누리는 영업의 자유’보다 우선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아동들이 이렇게 다양한 일상에서 자신에 대한 차별을 경험하게 되면 그들의 정서발달에도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어린이에게 공공장소나 식당 등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정보를 주고 적절한





행동을 습득할 기회를 준다면 대부분의 아동들은 놀라울 정도로 잘 해낼 것입니다. 노키즈존은 아동의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크므로 사라져야 하는 문화임을 인식하고 배제보다는 수용 속에서 온 마을이 함께 키우는, 어린이가 환영받는 사회 문화의 조성이 필요합니다.



어린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우스개 표현의 대상이 되고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되는 것을 두고 본다면 우리는 모든 어린이를 차별하고 무시하고 있는 중이며 내 아이도 그렇게 대하는 것임을 각성해야 합니다. 내 자녀를 포함한 모든 어린이가 ~할 수 있는 유능한 존재, 온전하고 풍부한 감수성을 가진 존재, 소통하며 배우고 성장하는 사회적 존재임을 깊이 인식하고 그 인식을 확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실천부터 해야 합니다. 우리 나라 어린이들이 우리 사회의 사려깊은 존중을 받으며 자라 자신을 존중하고 타인을 존중할 수 있는 어린이 존중 문화를 모두 함께 만들기를 기대합니다.



2023년 제101회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함께 만드는 어린이 존중용어 사전’을 아동 권리보장원에서 제작하였습니다. 이 사전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아동권리 침해·차별 용어를 파악하고 아동 존중의 올바른 용어 사용 문화를 조성하고자 기획되었다고 합니다. 차별용어인 ○린이를 대체하는 아동권리 존중 표현으로는 ‘초보자(입문자)’가 제안되었습니다. 사전의 제작 과정에서 이루어진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어린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족과 함께 외식을 못하게 돼 속상하고 기분이 나빴다”고 노키즈존 식당 출입 금지 경험 사례를 언급한 어린이 응답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함께 만드는 어린이 존중용어 사전에서 해당 부분을 소개합니다.



○린이는 무슨 뜻일까요?

○린이 (주린이, 부린이, 요린이, 헬린이 등) → **○○초보자**

“나 요린이라 요리 못해”, “너 헬린이이지?”

어떤 분야의 초보자나 막 시작한 사람을 낮춰 부르는 말로 ‘주린이(주식+어린이)’ ‘부린이(부동산+어린이)’ ‘요린이(요리+어린이)’ ‘헬린이(헬스+어린이)’ 등이 있습니다. ‘어린이’의 뒷부분을 따와 파생된 단어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많이 사용되다가 각종 언론사와 방송사에게 사용되며 대중들에게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린이’는 주로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는 사람을 낮춰 부르는 데 사용됩니다. 이런 배경에는 우리 사회가 어린이를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보기보다는, 모든 영역에서 ‘초보자’이며 미성숙하고 어린 존재로 보는 편견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한, 해당 표현이 지속적으로 사용되며 어린이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고 있는 지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노키즈존은 무슨 뜻일까요?

노키즈존 → **사라져야 하는 문화**

“노키즈존이라 아이는 출입이 어려워요”

노키즈존(NO Kids Zone)은 영유아와 어린이, 그리고 이들을 동반한 고객의 출입을 금지하는 업소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노키즈존은 주로 성인 손님에 대한 배려와 영유아 및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출입을 제한합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노키즈존은 아동에 대한 인권차별을 넘어, 아동의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일상에서 아동이 자신에 대한 차별을 경험하며 자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주요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어린이였습니다. (출처: {언론보도} ‘아이는 안돼요’ 노키즈존...전문가들 “어린이 정서발달에 악영향” 조선일보, 송복규, 이유정 기자)



재난호 보기



119가 오기 전까지 부모도 할 수 있다!

글 · 박지혜 (경희의료원 소아청소년과 간호사)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재, 소아청소년과 진료 체계의 붕괴, 소아 응급의료 체계의 붕괴 등의 소식이 여기저기 들려옵니다. ‘소포자’(소아청소년과를 포기한 자) ‘소아과 응세권’(소아과 응급실이 있는 동네)라는 신조어도 생겼다고 하니,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 걸까요. ‘내 아이는 건강하니까’ ‘내 아이는 괜찮아’ 라는 안심은 금물입니다. 아이들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습니다.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30분 전에는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잘 놀더니 갑자기 고열이 나서 처지기도 하고, 쾡쾡거리는 기침을 하다가 기도가 막혀 병원을 찾기도 합니다. 호기심이 많은 우리 아이들에게 갑작스러운 사고의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119가 오기까지는 4분이 걸립니다. 이 4분 동안 부모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병원으로 이송되기 전까지 생존확률을 높이기 위해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만약 우리 아이가 숨을 쉬지 못해 새파랗게 질려있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심폐소생술입니다. 119가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4분. 아이의 호흡과 심장이 멈춘 후 심폐소생술을 4분 이내로 실시하면 생존확률이 3배 높아집니다. 119가 오기 전까지 부모도 할 수 있습니다. 만일의 위험한 상황에서 아래의 몇 가지를 숙지하면, 사랑하는 우리 아이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하임리히 요법

부모는 반드시 아이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피치 못할 사고로 커다란 음식이나 이물질을 삼켰다면 즉시 하임리히 요법을 시행합니다. 하임리히는 음식, 약물, 이물질 등이 목에 걸려 질식상태에 빠졌을 때 실시하는 응급 처치법입니다. 이물질을 꺼내려고 손가락을 넣다 이물질이 더 깊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손으로 꺼내지 않습니다. 아이가 이물질이나 음식을 잘못 삼켜 쉰 목소리가 나며 숨쉬기 힘들어 하거나, 얼굴이 새빨개지며 청색증을 보일 경우 바로 하임리히 요법을 시행해야 합니다.

- 1세 미만의 경우 복부의 장기 손상 예방을 위해 복부 압박은 가하지 않습니다.
- 119에 신고를 한 뒤, 한 손으로 아이의 턱을 감싸 안고, 다른 손으로 아이의 뒤통수를 안아 들어 올립니다.
- 허벅지나 팔뚝에 지지하며 머리가 몸보다 아래로 향하도록 아이를 엎드려 놓습니다.
- 손바닥 밑부분으로 양쪽 날개뼈 중앙을 세게 5회 두드려 줍니다.
- 이물질이 나오지 않는다면 아이를 뒤로 돌려 바로 눕히고 가슴 압박을 시작합니다.



- 양쪽 젖꼭지 사이의 정중앙 아래 2cm 부위에 검지와 중지를 올려놓고 속도감 있고 강하게 5회 압박합니다.
- 1세 이상의 경우, 아이의 뒤에서 겨드랑이 사이로 팔을 넣어 복부를 감싸 안습니다.
- 손으로 배꼽과 명치 사이의 위치를 확인하고 엄지손가락이 복부로 향하게 주먹을 칩니다.
- 다른 한 손으로 주먹을 감싸 몸 안쪽에서 위 방향으로 빠르게 밀쳐 올리듯이 5회 복부를 압박합니다.
- 이물질이 제거되었다면 가슴 압박을 멈추고 119를 기다립니다. 제거되지 않았다면 119가 오기 전까지 하임리히 요법을 반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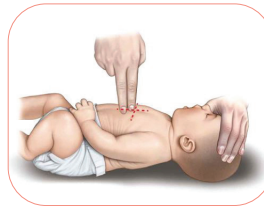


심폐소생술

아이가 갑자기 의식을 잃으며 숨을 쉬지 않거나 숨을 헐떡이는 경우, 자발적인 움직임이나 호흡이 없을 때 즉시 119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이의 발바닥을 두드려 반응을 확인하거나, 이름을 불러 의식 상태를 확인합니다. 코에 귀를 대고, 복부와 가슴의 움직임을 확인하여 숨을 쉬고 있는지 확인 후 바로 가슴 압박을 시작합니다. 심폐소생술 협회에서는 가슴 압박과 인공 호흡의 비율을 30:2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가슴압박** : 가슴 압박은 딱딱하고 평평한 곳에서 실시합니다. 1분에 100~120번 정도의 속도로 압박합니다.

- 1세 미만의 경우 양쪽 젖꼭지 연결선 바로 아래의 흉골 부분을 4cm 정도의 깊이로 압박합니다.
- 한쪽 손으로 머리를 지그시 누르고 검지와 중지 두 손가락 첫 마디를 이용하여 수직으로 강하게 압박합니다.
- 1세 이상의 경우 머리를 지그시 누르고 가슴뼈 아래의 1/2 지점을 5cm 정도의 깊이로 한쪽 손바닥 뒤꿈치를 이용하여 압박합니다.
- 8세 이상 혹은 체격이 큰 아이의 경우에는 성인과 동일하게 두 손을 겹쳐 가슴을 5cm 깊이로 압박합니다.



♥ **인공호흡** : 만 5세까지는 질식성 심장정지가 흔하므로 인공호흡은 심폐소생술에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공호흡을 시행할 때는 정확히 기도가 확보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한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뒤쪽으로 기울이고 다른 손으로 턱을 들어 올립니다.
- 머리를 기울였던 손으로 아이의 코를 막고 입으로 숨을 1초 동안 크게 불어 넣습니다.
- 이 때 가슴이 원래 위치보다 올라오는지 꼭 확인합니다.
- 안면부가 작은 아이의 경우 입과 코를 구조자의 입으로 막고 인공호흡을 시행합니다.
- 위급한 상황에서의 인공호흡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가슴 압박을 멈추지 않고 시행하며 119를 기다립니다.

아이가 위급한 상황에 놓인다면 부모는 더욱 경황이 없고 안절부절 애가 탑니다. 이런 상황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119를 기다리기보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차분하게 기적의 4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아이가 아프거나, 위급할 때 신속하고 안전하게 진료 볼 수 있는 세상을 기원합니다.



재난호 보기



- 이제는 가정에서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

글 · 유정은(교육연구소 R.E.D 대표)

“아이가 막무가내로 떼쓸 때도 의견을 존중해주어야 하나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근간으로 하는 ‘영유아 권리 존중’ 주제로 양육자¹⁾ 대상 교육을 하다 보면 자주 듣게 되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유아는 몰라도 영아 참여권은 어떻게 지켜줄 수 있을까요?”라는 단골 질문보다 좀 더 원색적 이랄까? 여하튼 해답을 알 수 없고 궁금하니 답해달라는 이유로, 내 아이를 잘 모르는 이야기를 늘어놓으려면 이 질문에는 답해야 하지 않겠냐는 도전으로, 이론과 실천은 이 정도의 간극이 있음을 설득하려는 의도 등등 내면의 욕구는 매우 다르지만, 그럴 때마다 저에겐 양육자에게 던지고 싶은 새로운 질문이 그득해집니다.

“떼쓰고 있음은 누구의 입장인가요? 아이에게 양육자가 떼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영유아 떼쓰기’ 하소연은 아이들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내내 어떤 관점으로 ‘내 아이’를 존중했었는지 양육자들에게 되물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린이집에서 하원 한 뒤, 자신만 봐달라고 떼쓰는 영아 때문에 힘들다는 하소연을 종종 듣습니다. 그동안 어린이집에 있던 영아는 다른 영아들과 함께 선생님의 사랑과 관심을 나눠야 했던 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영아 자신에게만 몰입해주는 성인과 지낼 수 없었기에 가정에 도착해서는 놀이할 때 옆에 있어 달라고 하거나, 종일 어린이집에서 단체생활을 해 온몸이 피곤하니 안아달라는 것이 떼쓰는 것이라면 양육자의 관점은 바뀌어야 합니다. 영아는 자신의 욕구를 명확한 의견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만이라도 집중적으로 나를 사랑해주는 양육자를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20분~30분 다른 모든 할 일을 멈추고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헤어지는 동안 양육자도 나(영아)를 생각하고 있었음을 비언어적인 태도와 스킨십, 대화로 이어지는 다정한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떨어져 있던 시간을 위로받고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게 된답니다. 양육자는 늘 바쁘고, 할 일이 많고, 그러니 집에 와서는 혼자 조용히 잘 놀고 있으라는 요구는, 영아 입장에서는 어른이 나에게 떼쓰는 중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1) 주로 엄마, 아빠일 수 있으나 다양한 가족의 돌봄 형태는 조부모, 아이돌보미 선생님 등 가정 내 양육의 책임을 함께하는 주체들이 존재하기에 주로는 ‘양육자’라는 표현을 사용

“내가 어린이집 갔을 때 바쁜 일을 끝내셨어야 하는 건 아닌가요?”

“나도 엄마, 아빠의 존재가 그리웠다고요.”

“어린이집에서 온종일 엄마, 아빠 사랑받을 시간만을 기다렸어요.”라는 영아의 비언어적 행동과 몸짓, 말로 건네는 모든 것에 양육자가 응답하고, 함께하는 것이 영아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울지 말고 말로 하라는 건, 대화할 자격이 갖춰진 후에야 존중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다면 양육자들은 존중받을 자격을 다 갖추고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고 있나요?”

영아도 아니고 유아인데, 심지어 말도 잘하는 아이가 징징거리면서 떼쓰는 건 도대체 어떻게 받아줘야 하나 하는 하소연도 자주 등장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12조 아동의 의견 존중]은 아동의 나이와 성숙에 따라 그 의견에 적절한 비중을 부여하며 본인인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유아의 의견이 잘 전달되려면 영아시기부터 감정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양육자의 모형화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슬프고 기쁘고 속상하고 행복한 상황에 놓이는 순간 그 기분은 “슬퍼”, “좋아”, “속상해”, “외로워”, “무서워”, “궁금해”, “즐거워”로 말하는 것임을 설명해주는 일상이 펼쳐져야 합니다. 그러나 어른도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은 것처럼 영유아도 표현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양육자 역할은 ‘영유아의 기분을 공감하고 기다려주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영유아 자신이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순간을 맞이하도록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양육자의 세심한 관찰과 인내는 영유아가 차츰 자신의 감정을 추스르는 방법을 터득하도록 돕습니다. 그 후에는 영유아가 말할 때 불안하지 않게 받아주고, 거절과 통제로 말문을 막지 말아야 합니다. 영유아 의견이 충분히 수용되는 경험을 통해 자신 있게 내면의 마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유아의 의견이 존중되는 일상의 참여권은 저절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양육자가 곁에서 들어주고, 공감하고, 수용하려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 놀 권리가 중요할까요

영유아에게 놀 권리가 왜 중요한지 한번 살펴볼까요?
영유아가 행복해지는 습관은 “놀이”에서 시작해요.

1

놀이를 통해 모든 발달이 이루어져요.

놀이는 몸을 건강하게 하고, 사회성과 감성을 길러줘요. 창의성과 상상력, 자신감도 자라나게 해주지요. 영유아는 놀이를 통해 대화하고 협상하는 능력, 갈등 해소기술, 의사결정 능력 등을 키우며 유능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게 되지요.

2

아동과 어른이 서로를 잘 이해하게 돼요.

영유아는 놀이를 통해 어른들과 관계를 맺어요. 영유아와 함께 놀이하면서 어른들도 아동의 입장을 더욱 잘 이해하게 되지요. 물론, 어른들의 지나친 간섭은 영유아의 창의성과 리더십 발달에 방해가 되니까 주의가 필요해요.

3

문화와 전통예술 발전에 기여해요.

가족과 지역사회의 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즐기는 일은 영유아의 소속감을 강화해요. 영유아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아 전통문화와 예술 발전에 기여하도록 이끌지요.

4

어린 시절의 문화를 창조해요.

놀이와 노래, 춤, 애니메이션, 이야기, 그림, 게임, 인형극, 축제 등을 통해 영유아는 어린 시절에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문화를 만들어 내요. 또래와 어울리면서 고유한 언어로 소통하고 자신들만의 비밀스러운 세계를 창조해 전파하지요.

5

충분히 쉬어야 에너지가 생겨요.

충분히 쉬지 못하면 영유아는 의미 있는 참여 활동을 하기 어렵고, 학습을 위한 에너지도 부족해져요. 쉼다는 건 영유아에게 어떤 의무도 없는 시간이에요. 영유아는 이 시간에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해요.

| 상반기 사업보고 |



북캠핑



문화공연



가족체험활동



봉봉영화관



사진공모전 - 눈이 부시게



부부의 날 - 그대와 함께



놀이지원 프로그램



부모교육



클로버 부모자녀체험



양육상담

| 9월~12월 예정 사업 |

울주군
센터

9월	10월	11월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독후화그리기 • 울주 나들이 • 부(父)라보 힐링 • 문화공연 • 부모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집 주치의 - 가정 내 양육환경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주나들이 • 찾아가는 소독행사 • 부모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아이 기질로 이해하기 - 우리아이 입학 준비 - 발달로 이해하는 성(性) - 자녀권리존중 - 영유아 발달이해 - 양육 스트레스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 나들이 • 조손도손(조부모프로그램) • 부(父)라보 힐링 • 부모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첫 걸음 - 우리아이 입학 준비 - 자녀권리존중 - 양육 스트레스 관리 - 가정 내 양육환경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om's 힐링
놀이지원 프로그램			겨울특강
돌·백일상 대여 / 에어바운스 대여 / 장난감 기부·수리 / 영화관람 / 양육상담 / 클로버 부모자녀체험			

온양
센터

9월	10월	11월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집단상담 • 킥킥득 문화공연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om's 힐링 • 가온(가자! 온양으로) • 조손도손(조부모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집단상담 • 부(父)라보! 힐링 • 울주나들이 	-
놀이지원 프로그램 / 영화관람			겨울특강
돌·백일상 대여 / 에어바운스 대여 / 장난감 수리·기부 / 양육상담 / 공(共)존(Zone)			

울주군육아종합지원센터 함께 키우고 함께 웃는 행복한 육아

울주군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울주군과 울산대학교가 설립·운영하는 육아지원기관입니다.

★ 울주군육아종합지원센터 SNS 활용하기!



1. 친구 찾기
- 울산 울주군육아종합지원센터 검색
2. 팔로우 하기



1. 친구 찾기
- 울산 울주군육아종합지원센터 검색
2. 소식 받기



1. 찾기
- 울산 울주군육아종합지원센터 검색
2. 채널 추가



울주군센터

- 주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로 101-18
- Tel. 052) 246-0600(대표번호)
052) 246-0601(대체교사지원사업)
- Fax. 052) 246-1717



온양센터

- 주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대안3길 58 4층
- Tel. 052) 248-4800
- Fax. 052) 248-4801



울산 울주군 육아종합지원센터
ULSAN ULJU SUPPORT CENTER FOR CHILDCARE